

## 총파업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일 시 : 1997년 2월 26일 금요일  
 장 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 김태현(민주노총 기획국장)  
 남일삼(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박석운(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송보순(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장)  
 임영일(영남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사 회 :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정 리 : 박영삼(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총파업 투쟁이 남긴 것

사 회 12월 26일 총파업투쟁이 시작된 지 2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3단계 총파업투쟁을 마감하고 4단계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고, 한국노총은 2단계 투쟁이 임투와 연계되어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영수회담이라든지, 임시국회라든지, 엇그제 대통령 담화문이라든지 약간의 상황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놓여있고 결정적으로 노동법의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만큼 총파업투쟁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 총파업투쟁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가늠해 보자는 뜻에서 바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회의에 보고된 자료를 통해 그간의 투쟁에 대한 중간평가를 공식화하기도 했고, 또 한국노총도 자체 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총파업투쟁에 대한 밖에서의 몇몇 평가들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들과 앞으로의 운동방향을 중심

**“전체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자위가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적 대중동원력을 가지고서 반동적인 국가정책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재동을 걸 수 있는 사회세력이 누구나라고 했을 때는 결국 역시 노동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임영일 -**

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토론의 불꽃을 틔우는 의미에서 임영일 교수께서 바깥에서 본 총파업 투쟁의 특징과 성격, 의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보태면서 자유롭게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영일** 갑자기 당황스럽네요(웃음) 제가 특별히 따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의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나 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의 영남노동운동연구소에서는 이번 투쟁을 대단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총파업은 이미 예고된 것이긴 했지만 실제로 파업이 어느 정도 힘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컸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은 노동조직의 취약성이라든지 대중들의 정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동안 노동법 투쟁을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 96년 4월에 노개위가 가동되면서부터는 노동법개정 투쟁과정속에서 쌓아왔던 노동쪽의 주체적인 힘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헤게모니가 정부와 자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6일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총파업이 전개되고, 그리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놀랄 정도로 힘있게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조직이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밖에서 예상하던 것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투쟁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파업투쟁이 실제로 얼마나 힘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떠나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투쟁이 과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정부와 자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 역시 해를 넘기

는 파업투쟁이 계속되면서 빠른 속도로 분위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투쟁과 비교해볼 때 6월항쟁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각계 각층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 사회단체, 각 계층조직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던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범대위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투쟁의 구체적인 계기가 날치기 통과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대중적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취했던 저쪽의 대응이 역작용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쪽의 아래로부터의 대중들의 강도높은 참여속에서 양대 노총이 87년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하게 명확한 자기 지도중심이 서있던 상태에서 체계적인 투쟁을 진행시켰고, 그것이 결국 노동법이 최악의 상태로 개악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토론회과정에서 논의되었지만 한계도 지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번 문제를 노동쪽이 주체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노동법 개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노동쪽이 바라는 대로 적극적인 입법화를 시키는 것, 즉 제도개혁 과정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고 노동쪽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그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는 이런 애매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투쟁에 있어서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가 87년 이후 근 10여년 만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전에 또 한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87년의 경우와 대비했을 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생적이고 비조직적인 투쟁이 아니라 분명한 지도중심이 존재하고 대중투쟁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고 그것을 적절히 제어하는 체계적인 투쟁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그동안 쌓인 역량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지위가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히 90년대 이후 사회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운동의 중심으로서 생각하는 입장들은 상당히 약화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듯이 조직적 대중동원력을 가지고서 반동적인 국가정책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회세력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 역시 노동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투쟁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적인 노동정책의 흐름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하나의 흐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 노동운동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동적

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대중동원투쟁으로 대항할 수 있었던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노동운동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 지금 임교수께서 총파업투쟁의 특징과 성격,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쟁 주체의 입장에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중간평가와 나와 있지만 보완해서 강조하실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김태현** 임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번에 건국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정치적 성격의 파업을 전개했는데, 투쟁의 완강함이나 규모면에서도 과거와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입단투에 저희들 집제로는 78개 노조 약 7만9천 내지 8만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번 총파업이 3

**“지난 8, 9년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총화로서 민주노총이 결성되었고, 또 민주노총이라는 중심이 존재했기 때문에 20일이 넘는 기간동안의 대중적인 총파업 투쟁을 중앙의 지침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민 -

단계를 거치는 기간동안 528개 노조 40만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81%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노동운동이 가져왔던 한계들, 즉 주로 자신들의 임금인상이나 경제적 처지개선이라는 요구를 넘어서서 전체 노동자, 또는 전 민중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교수님께서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지위를 확인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노동운동이 사회민주화운동의 주된 세력이라는 얘기를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또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87년 이후 실질적인 대중투쟁의 과정에서는 노동운동이 주로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해왔고 여기에 각계각층이 지원해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운동이 먼저 선두에 서서 날치기 노동

법, 안기부법 전면무효화를 내걸고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진로,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7년 투쟁과 비교해 본다면 8, 9년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총화로서 민주노총이 결성되었고 또 민주노총이라는 중심이 존재했기 때문에 20일이 넘는 기간동안의 대중적인 총파업 투쟁을 중앙의 지침 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이번 투쟁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노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해하고 우려반 기대반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한국노총은 과거와 다른 결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번 총파업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남일삼** 저희도 전반적으로는 기조를 같이 합니다. 노총 입장에서도 이

**“마지막에 가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면 노총은 주저않을 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쩌면 노총은 그것 때문이라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 요구죠.”**

- 남일삼 -

번 투쟁은 예고되었던 것이었고 계획대로 투쟁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총이 그전에는 파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으름장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총파업을 계획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악을 그것도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악법으로 개악을 한 것이 결국 총파업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나 기관 쪽에서는 “노총은 파업 못한다”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면 노총은 주저않을 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쩌면 노총은 그것 때문이라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 요구죠.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노총이 파업에 들어가고 노총이 가만있으면 박살을 내자는 식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들어가고 노총도 총파업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1월 14, 15일 파업을 할 때도 노총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도 저쪽 사람들은 신정 지나면 팬츠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공공부문이 안 들어가니까 제조업 쪽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힘없는 우리만 해야 하느냐, 공공부문이 안 들어가면 우리도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노총에서 특히 제조업 쪽에서 공공부문 노조에 가서 설득도 하고 파업 안하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노동조합으로서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하면서 파업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버스 쪽에서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가 제대로 했으면 15일날은 서울이 완전히 마비됐을 겁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도시철도가 있는데 도시철도만이라도 제대로 들어갔다면 지하철의 파업강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몇시간을 하더라

도 총파업을 단행했고 집회에도 40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날치기를 했던 어쨌든 법시행도 못해보고 일정 정도 항복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다만 한계는 민주노총이 파업강도면에서 힘이 있었고 통제력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앙에서 명령을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인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겁니다. 그 점이 이번의 제일 큰 한계입니다.

**사 회** 솔직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토론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포함한 투쟁의 한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과제를 논의할 때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박석운 소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범대위의 입장에서 총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석운** 임교수님 정리하신 것에 동의하고 두 분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 4월부터의 일련의 노동법 개정 혹은 노사관계 개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파업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투쟁의 시기 구분을 한다면 작년 4월부터 12월의 총파업 전까지를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총파업 이후를 2단계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파업 직후를 1단계로 보고 2, 3, 4단계로 나누는 민주노총의 시기구분과는 좀 다르죠.

제 얘기는 총파업 이전 시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상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 18일 이후를 2-2단계로 보고 지금은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2단계가 거진 끝나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총파업 투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즉 우리가 1단계에서의 투쟁을 잘 이끌어왔다면 이번 투쟁을 대단히 폭발적으로 고양시키는 도약점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총파업투쟁이 결정적인 승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질곡 또는 한계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총파업 투쟁의 의의는 그 자체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사석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습니다.  
필요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완강하고 견고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 박석운 -

지 25년 가까이 되는데 이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사실 엄청난 투쟁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해낸 거죠. 다시 말한다면 4.19이후 근 50년만에 처음 맞는 엄청난 투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가 '자신감'에 있다고 봅니다. 즉 노동자들이,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연대의 위대성을 몸으로 체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위적으로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다, 민중이 주인이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선각자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 대중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한꺼번에 풀아 박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다 같이 풀아박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일, 쉽게 말해서 맨 정신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었고 한마디로 뽕 갔기 때문

에 가능했다는 겁니다.(웃음)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가 싸웠을 때의 위대함이 가장 잘 나타났던 투쟁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비록 결정적이진 않지만 대단히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聖戰)이다."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근로조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동력이 바로 이 싸움이 성전(聖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사실 방송사 조합원들 전문, 금융 쪽의 조합원들이 이 싸움에 결사적으로 나설 직접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단히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큼니다.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외통수를 풀어줘버린 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고두고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에서 재검토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이번 싸움은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핵심은 투쟁의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은 아직 조직재편에 대한 인식수준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쪽에서는 범국민대책위의 활동을 총파업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습니다. 필요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완강하고 견고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조건을 이루는 또다른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각 계각층의 범국민적인 지지속에서 확산되고 고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공감과 활동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보수야당을 어떻게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

해서는 거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민주와 비(非)민주, 또는 민주와 반(反)민주의 구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YS와 비(非)YS의 구도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진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충분조건으로 국제적인 연대였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한국노총이 이번 투쟁과정에서 한 역할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이 이번 투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놀랐고 역사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노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면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노총의 총파업 동참이 이번 투쟁에서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었던 또다른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고마우면서도 또 서운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총파업의 동인은 무엇인가** ———

**사 회** 잠시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투쟁을 평가하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12.7% 밖에 안되는 조직력을 가지고 막강한 지배권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임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노동진영의 역량이 확대 강화되어온 것을 기본적인 근거로 드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정권이 오만한 태도와 헛발질로 반사적인 투쟁이 가능했던 측면을 강조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정도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과 자본, 그리고 정권간의 세력판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점검해보는 것은 정확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할 때 방향설정도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송보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것이 87년 대투쟁 때부터니까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동법을 가지고 조합원 교육을 올해만큼 많이 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11월 18일 노동자대회 전까지는 조합원들한테 “11월 18일날 여의도에 20만이 모이기만 하면 노동법 개정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총파업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해놓고 과연 총파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사업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자기 사업장 문제로도 파업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노동법 개정용 이슈로 파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접근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차례 교육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반응도 “노동법이 개악되면 문제겠다. 하지만 파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1월 18일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주노총이 사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장간부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조합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지점이 분명히 되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에 20만명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후 되지도 않고 정세는 계속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장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총파업투쟁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현장간부들의 헌신성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총파업 투쟁도 바로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송보순 -

이런 어려운 조건속에서 병원노련 대표자회의가 있었고, 그때 하루 전날 서울지역의 대병원 위원장들이 밤샘토론을 하면서 “한 번 총파업을 조직해보자”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파업은 우리의 경우 약 2주 동안 조직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할 수 있다, 간부들도 총파업이 가능하다고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되면 지방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사건은 아직도 생생한데 13일 파업을 가냐 못가냐, 민주노총 지도부가 과연 총파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등 당시에 민주노총은 지도력이 상당히 손상되는 시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12월 20일 민주노총 투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올해를 넘어갈 거다는 식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민주노총 지도부가 삭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26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26일 날치기가 이루어진 아침에 권영길 위원장님의 파업명령이 떨어지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우리는 29일에 파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29일은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회의를 했을 때, 한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날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파업을 못 가는 것이냐, 자동차 동지들이 우리를 믿고 먼저 파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그 동지들만 다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파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기로 바로 27일에 파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이 제조업하고 같은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평가서에도 병원사업장이 이번 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고리로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잘 없습니

다. 병원은 파업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모르지만 접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집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받은 나와서 싸우고 받은 현장에 남는 식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월 7일의 재파업 들어갈 때도 똑같은 이유, 즉 제조업 동지들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말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게다가 토요일날 마치고 갔던 것을 그날 5시에 민주노총 권위원장님께서 1월 15일 3단계까지 만이라도 병원 대오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해서 결국 그 한 주를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순회교육을 많이 했는데 대단히 놀란 것은 조합원들이 마치 스펀지처럼 상부의 지침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과 이 투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파업을 멈추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많던 조합원들도 딱 정리를 하고 푹푹 털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가면 탄압이 지독할 텐데도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산별조직화의 문제나 정치세력화의 문제, 그리고 재벌구조의 개혁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그렇게 교육을 해도 잘 안풀리던 문제들이 총파업 기간에는 그렇게 잘 이해되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병원 사업장들 안에는 우스개 소리지만 “조합원 외식을 대의원이 못따라가고 대의원 외식을 현장간부가 못따라 간다” 할 정도로 현장에 있는 조합원 외식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의의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던 조합원들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 그리고 산별노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된다고 질문을 던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총파업투쟁이 참 대단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현장간부들이 너무나 힘든 투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500명이 나왔는데 내일은 400명을 나오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는 물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장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총파업투쟁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현장간부들의 헌신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총파업 투쟁도 바로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투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운** 옛날에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하면 뭐라 하듯이 범대위, 범대위하면 '성은 범이요 계급은 대위다' 하고 우스개 소리를 하는데.(일동 웃음) '범국민대책위'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내부 실무자들조차도 범대위, 범대위해서 저한테 야단을 맞고 또 저까지도 정신이 없을 때는 범대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범국민대책위는 본래 총파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단계 과정에서 좀 뒤늦게 9월에 만들어졌지요. 그때 명칭은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였고, 그후 11월에 대폭 개편과정을 거쳤고 날치기 이후에는 당면과제를 좀더 분명하게 하자고 해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로 개편된 것입니다.

범국민대책위는 사실 1단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1단계 범국민대책위 활동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는 뻗하게 나와있는 상

태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뻗히 알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대의 그런 아쉬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했던 것은, 자본측에 의해서 노동법이 민주적 개정은 고사하고 개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런 위기감 때문에 범국민대책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4월 초의 노개위 구성 때까지는 잘되는 것 같다가 7, 8월이 지나면서 '아 이거 큰 일났구나' 하면서 공동대책을 세워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위원회는 노동자들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는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전체, 공공의 입장에서 또 공익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나가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언론이나 제도권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구조들을 민중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기초단위까지 펼치는 그런 계획을 9월과 10월에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대중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결행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인 역량이 잘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기와 힘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인 -

민주세력들과 함께 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전체의 민주화에 있어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가을의 노동법개정 투쟁 과정에서 바로 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전체 민중운동의 핵심과제이자 노동법개정의 제일조건이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의 실득력이 부족했는지 기초단위까지 확산이 잘 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범국민대책 위는 초기의 문체의식을 거의 풀어 내지 못하는 미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노동진영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 숫제 피박을 당하게 됐 습니다.

그런데 정부쪽에서 심각한 무리수 들 쓰면서 결과적으로 반전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고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노동쪽에서 대가

하고 있다가 아주 적절하게 받아치기를 한 것이 이번 투쟁이 위력적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거의 손 쓸 사이가 없었죠 이렇게 초반의 기선을 잡았던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대중의 동력, 두 번째는 손님실수, 세 번째는 기선을 잡는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투쟁 이 세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번 투쟁의 기본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태인** 투쟁의 동인은 양 측면이 결합된 건데요. 조직적인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송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부터 교육과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의, 조합원들의 파업찬반투표, 그리고 노동자대회에 이르기까지 단사에서부터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나 한두 번의 파업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국민적인 분노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단간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파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대중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결행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인 역량이 잘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고, 파업시점과 관련해서도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전술채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기와 힘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상대방의 전술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평면적으로 왜 안했느냐,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인삼** 노총도 투쟁계획을 날짜별로 정해 놓은 상태였고, 이것을 정치권에 대한 경고나 압력수단으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착실히 내부 교육도 해왔고 애초부터 12월 16일을 마지막 날짜로 박아놓고는 있었지만, 사실 파업까지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일단 쟁의신고만이라도 일괄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노개추에서 국무총리에게로 개정안이 넘어갈 때 차라리 아주 개악이 많이 되어서 넘어가든지 해야지, 적당히 노개위의 공익안 수준에서 일부만 개악시키는 식으로 되면 더 곤란하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냥 확정되는 거다는 거였죠. 파업도 안되고 명분도 안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당히 개악된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는 해볼만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다가 국회에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싸움이 돼버린 측면이 있는 거지요. 결국 준비도 많이 했고 교육도 계속 해왔고, 또 위원장의 의지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 열기와 요구가 결합되어서 총파업까지 온 거죠.

**임영일** 이 문제는 양 측면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외에 달리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좀 생각해볼 것이 있다 싶습니다. 한국경제가 전체적으로 하강국면에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노개위가 진행되는 시기, 박소장님 표현대로라면 1단계 국면에서 우리나라 자본측에서 경제가 실제로 어려웠던 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파잉된 대

"이번 투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치투쟁이다, 대정부투쟁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크게는 우리나라의 재벌과 노동,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립점이고 그것이 노동법의 날치기라는 정치적인 계기를 통해 표출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영일 -

노동정책을 한 일년 가까이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설을 사실 이상으로 포장해서 여론작업을 해오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했던 거죠. 그런데 통상의 사례에서 본다면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노동조합운동 그 자체로는 대대적인 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혁명적이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는 말이죠. 실제 90년 이후에 자본측의 전술이 그랬고 우리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재벌을 중심으로 그런 전술을 강도높게 폄했 것으로 생각되고,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총동원된 경제위기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그건 재벌자본들이 대단히 오만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상황이 전에 대중들이 고용불안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전에 앓을 수 없을 정도로 과잉압박을 받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업투쟁 과정

에서 밑으로부터 차고 올라온 힘이 그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노동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던가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간부들보다 의식이 더 높고 하는 식의 그런 정도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경제위기설 속에서 실제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특히 고용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느낄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법문제로 눈앞에 다가오니까 굉장히 노동자들이 반발이 심했고 이것이 참여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투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치투쟁이다, 대정부투쟁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크게는 우리나라의 재벌과 노동,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립점이고 그것이 노동법의 날치기라는 정치적인 계기를 통해 표출이 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겠지만, 날치기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었던 두 가지 쟁점의 문제도 정부나 정치권의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개별 자본들의 장난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

**사 회** 임교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기존의 평가와 약간 뉘앙스를 달리하는 부분인데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상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일동 동의) 그러면 이번 투쟁을 운동 전반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동력, 의식수준, 연대와 통일의 문제들에 대한 성과들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한 확신이 서야 앞으로의 운동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남일삼** 성과라면 일단 범개정 문제를 재논의로까지 후퇴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작은 성과이

긴 하지만 노동쪽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조직화든 뭐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연대관계를 만들에 있어서 밑바닥에 있는 조합원들이 ‘노동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노총 자체적으로 변화가 있느냐고 한다면 가시적으로 뭘 딱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투쟁에서 소위 변화에 둔감했던 조직에서도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겠지요.

**김태현** 다들 이번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립한지 1년밖에 안된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통일단결의 계기를 만들고 지도력의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또 투쟁과정에서 참여 조합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번 싸움을 통해서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뚜렷이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총파업에 대한 지지도와 민주노총에 대한 호감도가 작년에 비해 60%~70% 가량 높아졌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 속에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노동운동의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느낍니다. 아울러 조합원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수 조합원들이 노동자 스스로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세력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인식을 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총에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층 차원의 공동집회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운동의 과정속에서 노동운동이 각 사회세력과 함께 연대하는 모습들, 특히 지역차원에서 공동집회뿐만 아니라 서로 지원하고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화학적 결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강화된 것이라 보여줍니다.

**송보순**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현장의 성과라면 무엇보다도 투쟁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조합원 의식이 간부들보다 더 높다고 한 것은 비교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총파업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합 간부가 얘기하지 조합원들이 먼저 신문이나 홍보물을 읽고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는 것이죠. 이제는 조합원들이 정치세력화를 얘기하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또 그런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성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총파업을 거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과제들을 많이 안게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매일 매일 '누가 또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언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시국선언을 또 누가 했다는 것들이 지쳐 가는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한국노총이 규모를 떠나 파업에 동참하고 했던 것이 조합원들

“이제는 조합원들이 정치세력화를 얘기하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또 그런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성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우리에게 면지는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총파업을 거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과제들을 많이 안게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 송보손 -

에게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대와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소장님께서 노동조합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범대위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8일을 전후한 3단계 투쟁이 어떻게 하면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매 시기가마다 제기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민주노총 중앙에서 범국민대책위와 교량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 인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최근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300원안이 올라왔는데, 의무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습니다.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투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정세를 주도하고 정치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파업투쟁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력을 위협할 수 있었고, 또 사회운동 전반을 우리의 입장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로서 대안세력은 분명히 민주노총이라는 것, 노동자세력이라는 것을 일정 정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 한보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쉬운 것입니다. 이걸 결국 우리의 조직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그런데 이러한 성과와 과제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 투쟁이 목적의식적으로 벌였던 최초의 총파업투쟁이다 보니까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조직간에 한변으로는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가 운동과정에서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문건들을 보면 우선 12월 13일에 파업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또 노총을 보더라도 12월 16일 파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등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박석운 소장께서는 야당과의 공조문제에 대한 이견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외부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교환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태현** 내부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 상황에 차이가 있고 투쟁의 경험과 그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견들이 결의 과정속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통일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견들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도 대개는 일정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많

다고 느낍니다. 우선 12월 13일의 파업이나 그 이후의 파업시점의 선택에 대해서는 대중적 분노의 조직화의 문제, 투쟁의 역량, 파업의 효과라는 여러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상황이 정권이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 상황에서 12월 13일의 파업은 날치기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날치기는 날치기대로 강행되고 안은 안대로 관철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서 의견의 차이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 이견들이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투쟁과정속에서는 객관적인 주체역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자기 힘을 놓고 투쟁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논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파업으로의 전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파업이 20일을 넘긴 상태였고 주동력인 제조업부문에서 피로도가 이미 극에까지 달하

“주체역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하부로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주체역량의 노출 자체가 상대방에게 우리의 취약함을 내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국민적 명분을 내세워서 접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견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현 -

는 상황이었고, 15일부터는 총파업의 수위가 거의 10만명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대 37, 8만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토요일까지 28만, 18만, 10만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전국적 총파업이라기보다는 일부 제조업의 파업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투쟁 자체가 고립되면서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도 비록 초기에 각계각층의 항의가 조직화되었습니다만, 18일 서울역 집회 이후의 경우에는 아주 소수 대외 외에는 하부로부터의 대중적 진출이 표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 외에도 파업일정의 연기, 지하철의 파업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내부 동력의 편차 때문에 그렇게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객

관적 조건이 있었던 것이고, 대신 그것을 개별적인 판단에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의 일정한 지침 하에서 전술적 후퇴를 하고 집중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주체역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하부로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주체역량의 노출 자체가 상대방에게 우리의 취약함을 내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국민적 명분을 내세워서 접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이 마치 내부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했다는 식으로 일부 평가되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부족했거나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견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한 범대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4단계 총파업을 맞고 있었고 거기다 명동성당에 지도부가 있는데 거기서는 범대위와 회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범국민대책위에서 기민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범대위가 민주노총의 전술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서로의 사업을 통해서 결합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공조문제는 초기에는 총파업을 위한 내부의 역량 최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고, 막바지 단계에 가서는 일정한 요구가 있었지만 서로 싸인이 안 맞았다고 봅니다. 범대위도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인실** 다 아시겠지만 한국노총에서도 의사결정이 일사불란하게 못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노동법 내용에 대해 조직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갈등과 논란이 있었죠. 특히 16일 날 총파업을 결행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만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쪽에서는 초기에 박살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날치기 명분만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투쟁강도가 더 높아졌을지 아니면 전력이 더 떨어졌을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또 노총이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반도안 따라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강도면에서도 아주 편차가 심했습니다. 제대로 눈 똑바로 뜨고 사용자들과 맞서서 강도 높게 하는 곳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눈 깜짝거리고 대충 좀 하자 이런 곳도 있었고 했습니다.

조직체계가 단위노조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적인 한계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영일** 노총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물론 화학적 결합의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노총, 민주노총 가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진 전체 노동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노총이 함께 움직인다는 건데, 만약 한쪽에서는 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손놓고 있었다면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다행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노총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파업에 같이 들어갔던 것이 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통일문제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직이 발전하는데서 소중한 경험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노총도 파업한대더라” “노총도 움직이는 판인데”(일동 웃음) 이런 것들이 상층적인 자극을 한 거죠. 제가 명동성당에 갔을 때도 마침 권영길 위원장과 박인상 위원장이 통화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노조 조직 내부적으로는 느낌이 다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일반대중이나 국민들의 여론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노총 움직이고 민주노총 같이 움직이고 서로 연합 집회하고 하는 모습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당하구나’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

**송보순**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간 이견에 대해서, 특히 13일 파업유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조직 내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10일 집회하고 가시적인 투쟁이 없었던 상황에서 12월 13일의 총파업 날짜까지 왔는데 그게 연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현장간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13일 투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연기가 됐는지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견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총파업 투쟁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허탈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월 18일 수요일파업으로 넘어갔을 때의 회의에도 제가 참석했는데 그 때는 회의가 너무도 일찍 끝났어요. 원래 민주노총의 회의가 일찍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2시간, 13시간 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20일 동안 싸워서 해볼 것은 다 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서로 너 박아라, 나 박아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때도 수요일파업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도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생각보다는 지도부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 틀리고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파업 기간 동안에는 이 지도부를 살리고 엄호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후 다른 어떤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의 평가속에서도 얘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보순 -

파업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갈 거라고 생각했던 회의가 지역에서 왔던 대표나 산별대표가 할 것 없이 의견이 통일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투쟁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의 허탈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인가 ‘민주노총 권영길씨 또 배신을 했다’(일동 웃음)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세워주고, 지도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생각보다는 지도부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틀리고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파업 기간 동안에는 이 지도부를 살리고 엄호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후 다른 어떤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의 평가속에서도 얘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야당과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 대중 때문에라도 야당과의 공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날치기 통과될 때 “야당이 그걸 몰랐겠느냐, 우리도 감지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런 정서가 너무나 강했던 거죠. 물론 총파업 때문에 여력도 없었지만 그럴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파업과정에 나타난 조직간의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업 쪽 특히 조선은 사실 대단히 어려웠을 테고 병원도 그랬습니다. 예전의 파업보다는 많은 수가 함께 하지 못했죠. 하지만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더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왜 안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



졌지만 투쟁 막바지에 가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참여한 조합원들이 일반적인 임단투때보다 더 잘 이해해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이후 좀더 준비된 싸움을 한다면 아마 그런 갈등의 폭은 지금보다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범국민대책위의 성과와 한계 ———

**사 회** 이번에는 범국민대책위로 이야기를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소장님도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했는데 노동조합쪽에서는 범대위를 보조축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대위가 구성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또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던 여러 단체들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투쟁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박소장께서 지금까지의 범대위의 활동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범대위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주문도 아울러 해주시죠.

**박석은** 범국민대책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월 29일날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벌여 나갔는데, 제도연론에는 제대로 보도가 안되었지만 각 지역 각 부문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최근에 자료집을 내면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활동이 벌어진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추리고 추려서 묶었는데도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실었으면 3천페이지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회의 각 부문의 지도급 인사가 3만명을 넘고, 지역단위 대책위가 꾸려진 곳이 56군데, 구성은 안됐지만 사실상 공동대책 활동을 한 곳이 61군데로 합계 117군데 정도가 지역단위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중의 다수는 군단위 활동까지 전개했던 곳입니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로 게재되고 있는 1만인 선언은 모두 다 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약 15만명 정도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3월 6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민주노총이 2월말에 가면 총파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밀려서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정확한 엄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언을 조직

한 것입니다. 지역대책위도 거의 모두 모두 농성을 하고 지역선전전을 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50만명의 범국민 서명이 모아진 것이고 어제 그것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날치기 악법의 무효화를 인정하고 분명히 그러한 기초 위에서 재심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1월 10일 전국사회단체비상연석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사상 최대의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863군데의 단체가 회의에 참가했어요. 저 자신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 줄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단체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망라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를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면 실제의 활동성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죠.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은 그 자체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모두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할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집중점을 찾아내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집회를 벌였지만 제대

로 모아지지 않음으로써 위력적인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부문활동은 활발한데 그것이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측에서 범국민 저항운동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작업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이중적 과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너무 한가지 과제에만 허덕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주체가 돼야 했는데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의식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운동의 수준이나 힘이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대책위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2단계 총파업투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봤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자꾸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저 자신부터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며칠 2~3주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상대를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고 시뻘뻘로 외통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때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로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힘들었죠. 성전(聖戰)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너무 쉽게 맹정신으로 돌아와버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투쟁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긴장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다양한 다른 전술모색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 박석은 -

있느냐 할 정도로 극도의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1월 18일에 수요파업체제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당시 노동운동 진영은 총파업에만 몰두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사회변화가 진행될 국면에 있었고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후 수요파업 체제로 전환하는 곡절을 겪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파업이 정제하면 범국민대책위도 정제하고 총파업이 고양되면 범국민대책위도 활기를 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요파업으로의 전환은 모두를 당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고 시뻘

뻘로 외통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때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상대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목을 조르는 우리의 손은 얼마나 아프고 우리 역시 그로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힘들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20 몇 일을 싸운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면, 성전(聖戰)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비유하자면 너무 쉽게 맹정신으로 돌아와버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투쟁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보지만, 긴장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다양한 다른 전술모색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은 맞았지만 전술채택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전략까지도 변형되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수요파업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수요파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은 실행되기 어려운 전략전술을 채택했

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거의 밀려서라도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구간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상황을 진단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결코 절벽에서 한발 더 내딛자는 식의 모험주의적인 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월 26일의 싸움과 같은 그런 투쟁이 지금 시기에 다시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장렬한 투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의 영웅적인 투쟁을 훼손시킬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범국민대책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출범 때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민운동본부로 확대 발전시키자는 논의도 했습니다만, 여건상 아직 성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말 3월초의 투쟁에서 어떤 한 시기는 매듭이 지워질 것이고, 그것이 일단락 되는 시점에서 그 다

움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범국민 저항운동 혹은 정치세력화, 정치활동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전선운동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전선운동은 다소간의 균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2년에 전국연합이 창립될 때까지는 함께 했지만 그 이후 5년 가까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노선에 따라 균열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총파업투쟁 기간동안에 극히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지만 총파업 투쟁 국면에서 동참했다는 것, 이것은 이번 싸움의 대단히 중요한 성과, 그리고 범국민대책위의 핵심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아직은 완전한 화학적 결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민운동본부로의 확대발전 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선운동의 균열이 치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나아가 결정적인 요소로서 노동조합전연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이 대오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과 변화를 끌고나가는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상태는 정확히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이번 2말 3초의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총파업투쟁을 하니까 동력이 붙고 제대로 안되면 떨어지고, 다시 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점들이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필요조건이라는 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사 회** 임교수님께서서는 범대위가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어떤 활동으로 갔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영일** 범대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참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느낌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와서 집회 와보고 범대위 사무실 가본 정도였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범대위에 참여하는 조직은 많은데 실제로 제가 본 것은 움직이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범대위 자체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투쟁에서 범대위쪽에서 좀 과부하를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6월항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범국민적 항쟁에 대해 과잉집착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좀 노동쪽하고의 관계에서 섬섬함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잉된 부하가 있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 총파업이 남긴 노동운동의 과제들

**사 회**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 투쟁은 노동계 전반에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치세력화의 문제라든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또 노동계 통일 의 문제,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수준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갈수록 보다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투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고민이 진전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직 역량의 일정한 한계를 체감하면서 산별노조에 대한 필요성과 그 과제의 긴급함은 더욱 심화되

고 구체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다른 여타 과제들의 선결조건 내지는 선행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오신 분이어서 임영일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운동의 향후 과제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임영일**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3%선으로 떨어져 있는데,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라는 조건에서는 합법조건, 비합법조건 따지기 이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대적인 조직확대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이 확대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올라가면 조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작은 사업장의 문제인데,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그 사업장 하나하나에 노조를 만들고 상급노조 가입하고 이런 수공업적인 조직방식으로는 조직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투쟁에서 다소 늘고는 있지만 그것도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산별노조 문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총파업투쟁을 지켜보면서 이번 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기업별 체제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조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총파업이라는 수단은 매우 드물고 또 마지막 수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투쟁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대중동원 투쟁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조직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만약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총파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파업의 전략과 전술의 측면에서 경교파업이나 부분파업이라든지, 지역파업이라든지 그리고 특성 사업장을 찍어서 하는 파업이라든지 하는 식의 전술채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단위노조의 지도부들이 기울여야 될 에너지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전체 총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파업의 일정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할 상황과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 대적관계이고 하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혼선과 역량의 소모가

**“총파업투쟁을 벌인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파업의 과제는 이중화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대외적인 과제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대내부적인 조직적 과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투쟁의 경우에는 대외적 과제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법의 개악저지 무효화인데,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내부적 조건상 대내적인 조직적 과제를 설정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임영일 -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총파업투쟁을 벌인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파업의 과제는 이중화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대외적인 대적 과제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대내부적인 조직적 과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투쟁의 경우에는 대외적 과제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법의 개악저지 무효화인데,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내부적 조건상 대내적인 조직적 과제를 설정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적관계에서 우리가 총파업을 통해서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악의 경우에 조직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설사 대외적 목표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적으로 동요와 이완이 생기지 않고 통일단결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대내적 목표가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사실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

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일차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슬아슬했던 겁니다.

어쨌든 대내적 과제는 조직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산별노조로의 전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통일단결의 의미, 연대의식을 체득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위치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마찬가지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차원에서의 지침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시급한 조직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병원노련, 전문노련 각개약진 해왔다면 더 이상 그냥 내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총파업 보면서 들었습니다. 총파업의 경험을 조직 내부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별수준과 중앙 조직 수준에서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지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파업투쟁 한번 힘있게 하고 나서 조직의 힘이 확 떨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 회** 산별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노동계의 통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선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 3주체의 통일문제가 있고, 또 나아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의 통일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영일** 금속 문제에 대해서는 요사이 우리 연구소에서도 계속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금속 3조직 통합이 어떻게 전망되느냐 하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죠 사실은, 간혹은 이번 총파업 거치면서 서로 조직경쟁 한다면서 오히려 지도부들 사이에서는 거리가 더 멀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단사 활동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산별건설 이라든가 민주노총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대우조선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 반성하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내부 조직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파업에 일부만 참여하고 다수는 참여를 못했는데, 파업에 참여 안한 사람들은 1인당 2만원씩인가 이렇게 얼마씩 떼어서 파업참가한 사람들 임금보전 해주고 조합비 인상안 결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안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간부들도 하나같이 금속 3조직 통합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과정에서 누가 더 파업 잘하느냐 하는 이런 경쟁이야 서로 상충작용도 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마치 주도권 다툼처럼 제기되고 보이는 것은 조합원 대중의 정서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남연구소도 1차 토론하고 있기는 한데, 현장사람들과



"임단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연우호화 투쟁은 이제 시기적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계속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절충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개투를 가지고 계속 대중들을 동원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선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고, 임단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개투의 연장선상에서 없었던 것을 임단투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임영일 -

얘기를 하면 딱 3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쪽, 즉 야당과의 공조 속에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하자는 쪽,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조직의 내부적인 역량상 당면한 과제이긴 하지만 주체적으로 떠맡기에는 어려운 처지가 아니냐, 그래서 대선 시기에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총파업 성과를 임단투를 연결시키면서 산별조직 건설을 하루속히 행보를 옮기는데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대선 국면에서는 최소한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에서 하자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의견의 일치는 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조직은 독자세력화하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다른 거고 어렵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

떤 입장에서건 전체 내셔널센터 수준에서 방침이 있어야 되고 그 방침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조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것이 이제는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동단체들이 과잉된 평가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별로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들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민주노총의 가장 큰 정치적인 성과라면 민주노총의 이름 하에 통일된 투쟁을 경험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대선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내부에서 비

교적 순조롭게 산별조직의 성과가 일정정도 쌓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시기에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 한다면 그 기반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과거처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외곽단체나 지식인 활동가들이 제기하고 그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대중조직에 대해서도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노동법개정 투쟁에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무효화 투쟁은 이제 시기적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계속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법개정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적당히 절충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개투를 가지고 계속 대중들을 동원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선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고, 입단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개투의 연장선상에서 잃었던 것을 입단

투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노총도 한때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방침도 만들고 고민을 해왔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남일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 투쟁에서 기업별체제의 취약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조합원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노총은 그전부터 산별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주 절실했습니다.

우선 조직확대의 측면에서도 산별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이 보장되면 다소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현재 어려운 것 아닙니까? 또 조직역량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 산별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연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병원노련은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해서 산별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또 인식도 깊어져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보순** 현재 병원노련은 준비위원

**"이번에 제가 고민이 된 부분은 현장간부들이 민주노총 방침에 대해서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현장이 수동적으로 안되고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힘이었던 현장을 놓치면 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산별노조 내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 지점입니다."**

- 송보순 -

회를 꾸려서 98년 2월에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97년도에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을 전 조직에 구체화시키고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급합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산별노조를 운영해본 경험은 없고 그런 것이 문제지요.

이번 총파업 투쟁이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산별노조라는 조직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투쟁의 파급력이 이 정도였겠느냐는 거죠.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임교수님 지적대로 기술선택의 폭도 대단히 넓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에도 조직간의 편차가 대단히 큰데, 산별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면 조직역량의 평준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역량이

대단히 끌어 올려져 있을 것 겁니다.

이번 총파업 거처면서 단위사업장에서 하는 얘기가, 빨리 산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민이 된 부분은 현장간부들이 민주노총 방침에 대해서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현장이 수동적으로 안되고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힘이었던 현장을 놓치면 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산별노조 내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 지점입니다.

병원노련도 40만 병원노동자 가운데 대규모 사업장들은 거의 다 조직이 되었지만 조합원이 3만 6천밖에 안되는 것은 나머지 36만 미조직 노동자가 중소기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들이 안고 있는 고용불안 내지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타의 산업에서도 그렇듯 부실기업이 도태되고 생산적인 기업이 살아 남듯이 병원산업에서도 이런 구조개선의 문제로 산별노조와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재별구조를 타파하는데 있어서도 산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원노련의 입장에서는 98년 2월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 회** 민주노총에서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태인** 산별문제와 관련해서는 4단계 총파업 때문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를 하지 못하고 3월 임시대의원대회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미 중앙 차원의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산별추진 소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과제들은 금속 3조직간의 통합문제, 각 산별간의 구획문제가 있고 또 각 연맹이 단일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핵심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국의 경험을 경험과 사례들을 총합해서 7월경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파업 과정 속에서 조직

간의 투쟁력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서 파업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중앙 지침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들을 산별노조의 과제와 더불어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 현장조직화 문제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는, 각 산별과 지역본부의 구성과 정확한 의사수렴 통로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기존의 중앙집행위원회와 투본대표자회의, 중앙위원회 등이 의사수렴과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작업도 필요합니다.

노동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복수노조체제가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상호간의 공동사업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이 속에서 민주적인 통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 회** 노총은 지금 총파업에서 임투로 전환하고 있는데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어떤 과제들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남일삼** 선원노련이 21일 산별노조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순회를 해보니까, 민주노총처럼 파업을 해야된다 이런

“철저하게 노동자 주도로 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결국 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노총하고 같이 후보단일화도 촉구하고 12월까지 계속 반신한국당 운동을 떠나가자는 것입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우리 힘으로 당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걸 또 조직노동자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이 나서는 편이 되어야 합니다.”

- 남일삼 -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이 비교적 파업을 많이 한 곳이었는데, 조직역량이 파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단 투를 조금 늦은 곳은 당기고 빠른 곳은 늦추어서 투쟁의 시기를 통일하고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일경에 총파업을 한번 더 하자, 대신 무기한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대거 참여하는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나 정치세력들한테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경에 가서 정치적인 성격을 파업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인데, 이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는 것이죠.

정치세력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우선은 이번 대선이라는 시험무대에서 노동자들이 지명하는 후보를 우리 힘으로 당선시켜서 정권교체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노동자 주도로 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결국 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같이 후보단일화도 촉구하고 12월까지 계속 반신한국당 운동을 떠나가자는 것입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우리 힘으로 당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걸 또 조직노동자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이 나서는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한 9개월 남았으니까 정치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남일삼**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엔 당장에 통합을 전제로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우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의 연대집회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 회** 민주노총에서는 정치세력화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김태연** 이것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들 사항인데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98, 99년까지 정치조직을 건설하고 2000년대에는 교섭단체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총파업 때문에 정치사업이 내부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근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정치학교 등을 통해서 조합원과 현장간부들을 의식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대선에 활동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이슈들을 각계각층과 연대해서 정식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7, 8월경에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면서, 실현 가능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선 방침을 제출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충실히 한 뒤에 하반기에 가서 정세에 부합하는 대선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가 이루어진다면 2000년대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네. 오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워낙 광범한 주제이고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오갔고 교감도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투쟁국면이 일단락 되면 다시 종합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총파업투쟁이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모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문제만을 다룬 것은 논의의 집중을 위한 것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잘 싸워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남아있는데요, 노동법 투쟁이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임투를 포함한 지속적인 투쟁과정에서 이번 총파업의 열기와 요구, 그리고 투쟁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과제들을 응축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노동사회연구소**